

## 숨은그림찾기 &lt;66&gt;



(웃) (아) (보) (세) (요) 담배피아프, 커터칼, 열대어, 펜촉, 바늘, 서틀록, 디리미, 칫솔, 송사리

## 마누라의 변덕

유난히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마누라가 금연 못하는 남편에게 의지가 악하다고 매일 바가지를 긁었다.

“여보, 옆집 아저씨 좀 보세요. 새해 들어 3개월째 금연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나는 금연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부인이 남편의 귀에 속삭였다.

“여보, 옆집 아저씨가 금연을 포기했대요.”



## 지난주 정답

서틀록, 펜촉, 열대어, 송사리, 알파벳 A자, 바늘, 촛불, 대접, 사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종석 <해남군 해남읍>, 백부하 <남양군 남면>

##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 28일 색채의 미술사 '샤갈' 사망

큐비즘을 창시한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 지난해 전세계 경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거래된 작가이면서 가장 비싼 작가이기도 하다.

전세계 2천900여 경매회사에서 거래되는 미술품 가격 동향을 전달하고 분석하는 아트프리스 닷컴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피카소의 작품은 2천87점, 거래 총액도 3억3천920만달러(약 3천18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색채가 무엇인지를 아는 미지막 화가”라고 칭송한 화가 사갈이다.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이름 만으로도 친숙한 사갈은 지난 1887년 7월 러시아 비테프스크(현재 벨로루시)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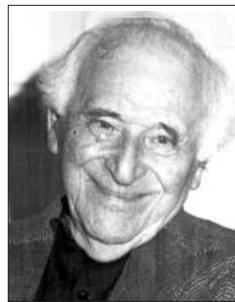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와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양데팡당전 출품에 이어 1914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첫 개인전을 열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사갈의 작품은 초기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슬라이브의 환상감과 유대인 특유의 신비성을 융합시켜 독창적 화풍을 구축했다.

사갈이 추구한 작품들은 상징적이고 미학적인 형식 요소들과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사람들과 동물을 다채롭고 강렬한 색채로 묘사, 시각·동화적 분위기와 조형미를 강조하는 대작들을 많이 남겼다.

사갈은 세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가면서 특히 한국인에게 인지도도 높다. 대표작을 꼽으라



&lt;샤갈&gt;

면 ‘눈 내리는 마을’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샤갈 작품 제목 중 ‘눈 내리는 마을’은 없다. 박상우의 소설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나 ‘사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로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동명 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카페 때 문일 것이다.

대표작은 ‘나와 마을’, ‘바이올린 연주자’, ‘순 가락이 7개인 자화상’,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에펠탑 앞의 신랑과 신부’, ‘서커스’ 등이다.

20세기 최고의 색채 화가라는 사갈은 100년 가까운 생애동안 유화를 비롯해 벽화, 스테인드글라스, 무대 장식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지난 1985년 3월 28일 프랑스 남부 생 폴 드 방스의 자택에서 그림만큼이나 화려한 생을 마감했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갈의 작품 ‘나와 마을’.

57. ‘마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지난 25일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3분44초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태환 ②강용환 ③이안소프 ④그랜트 해켓

##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답장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2월 10일 辛酉)



36년생 주변이 도와서 가정이 안정하게 바뀔 수다. 48년생 마부리가 좋을 수 있다. 60년생 배사를 짐사신하고 변동하면서 무리하지 마라. 72년생 가내 복고 송사 비시 극히 조심해야 할 수다. 84년생 부단히 하루이지만 나중의 재물을 있다.



정운의 숫자 : 14, 38  
37년생 財破(재파)를 불러오니 이는 길도 물어가라. 49년생 희망이 문전에 있고 의외의 협조자가 나타난다. 61년생 모든 일이 순해하며 행운을 얻을 것이다. 73년생 일마다 뇌색하고 벌사가 불러하니 조심이 필요하다. 85년생 육신을 버리면 득은 든다. 행운의 숫자 : 17, 29



38년생 지난 일은 괴롭지만 좋은 일로 연결된다. 50년생 좋은 듯한 연결이 불편스럽게 나타난다. 62년생 性異(성이)에 흥사만 남고 부부설전이 예상된다. 7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39년생 이는 도끼에 밭을 씹힐 운로니 점신 짜증 차려야 할 것이다. 51년생 과욕하면 절망이 따른다. 63년생 희망찬 하루가 된다. 75년생 애인이 생기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9, 36  
40년생 재복과 어복이 자례하지만 중점을 지키라. 52년생 내조자 勤助(친조자)를 만나는 행운이다. 64년생 어떤 새로운 일에도 끌어들여 마라. 76년생 주변에서 당첨하게 되어도 말려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7, 40  
41년생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53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5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은 준 않는다. 77년생 미운사람이 아첨하며 내편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25, 42  
42년생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놀랄 일이 다발한다. 53년생 자기 노선을 찾았으나 급진하면 불편하다. 66년생 주변과 유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78년생 금전거래에 시비가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42  
43년생 확장하면 百戰百敗(백전백패)하니 내실을 기하면 이득이 있을 수다. 55년생 신사참여는 질대로 불가할 수다. 67년생 교체되니 신중을 잊지 마라. 79년생 신용도가 높아지니 신사에 적극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



44년생 타인과 구설수를 만나는 행운이다. 56년생 大吉(다경)이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찬 진행이 가능된다. 68년생 일회일복하나 결혼하는 행운으로 진행할 수다. 80년생 잔고 끝에 약수난다. 결단력이다.



45년생 신사 모색해서 오후부터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 57년생 대개는 大盈(다영)하니 의심 없이 추구하라. 69년생 내실을 기하고 육심을 줄여야 할 판이다. 81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나 옛정을 뒤집는 행운의 숫자 : 02, 26



46년생 아내의 건강에 유념하라. 58년생 사기에 말려들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70년생 천지가 방해하지 않는 한 길을 수다. 82년생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한 행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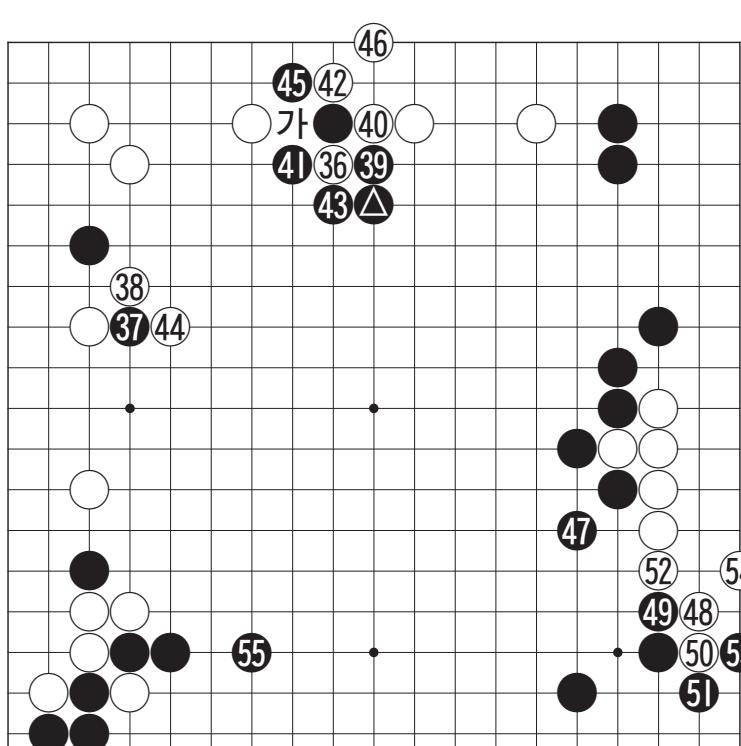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01, 35  
47년생 오후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는다. 59년생 금전거래에는 더한 신경이 필요하다. 71년생 아랫사람만 잘 다스리면 만사가 협통한다. 83년생 재물로 일고를 감수해야하고 더욱 심하면 본성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8, 3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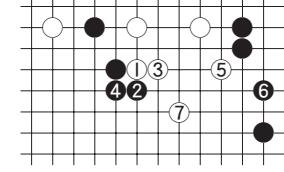
윤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1기  
SK 가스비  
프로 10 걸전

白 이 재웅 5단

黑 김수용 초단



이 재웅 5단이 즉각 백 36으로는 애초에 ‘참고도’의 백 1로 두고 3,5를 선수한 다음 7로 두는 것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  
흑 45로 젖혔을 때 ‘가’로 끊어 패를 하는 것은 무리.  
흑은 피해가 적은 반면 백은 지면 끝장이다. 김수용 초단은 백 46의 빠른 후퇴를 강요한 다음 흑 49를 선수해 54까지 우변을 결정하고 55로 지켜 초반의 일합에서 우위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결국 흑 43으로 빵따님을 허용하고 백 44로 젖혔는데 이 결과는 45로 젖히는 수가 남아 흑이 만족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 바둑 소식

## 박영훈 9단, 온소진 3단 제압

박영훈 9단이 지난 26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 배 본선리그에서 온소진 3단을 198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했다.

박 9단은 중앙 흑모양의 약점을 교묘하게 찔려 좌변을 크게 차지하는 노련함으로 승리를 따냈다.

박 9단은 이 대국을 포함해 현재 9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정보배 본선에도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온소진 3단은 2연패를 당했다. 이 대회 1위는 타이틀을 보유자인 이세돌 9단과 페권을 딴다. 우승상금은 5천 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lt;870&gt;

It'll come to me  
생각이 날 거예요

A: What's his phone number?  
B: Let me think a minute.  
A: Double two seven four two six ...?  
B: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A: 그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B: 생각 좀 해보구요.

A: 227-426 ...?

B: 잠깐만요. 생각이 날 거예요.

it = (원래는 알고 있지만) 잠시동안 생각나지 않는 일  
It'll come to me.  
= I'll remember.

(유사)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입안에서 가물가물한다.)

(반대) I'll never come to me.

= Please remind me.

= Make me remember.

## 오하요우 니혼고 &lt;870&gt;

買(か)い物(もの)でも行(い)こうか?  
쇼핑이라도 갈까?

A: 買(か)い物(もの)でも行(い)こうか?  
B:いいよ.どこ行く?

A: 濱谷(しぶや)から原宿(はらじゅく)輕(かる)く流(なが)そうか?

B:いいねえ。

A: 쇼핑이라도 갈까?  
B:좋아. 어디로 갈까?

A: 시부야에서 하라주쿠, 가볍게 한바퀴 돌자

B:좋아

輕(かる)い: 가볍다  
流(なが)す: 흘리다  
買(か)い物(もの): 쇼핑

## 나하오 총구워 &lt;61&gt;